

지방자치단체의 색채가이드라인 구성 내용 실태*

Contents Analysis of the Municipal Color Design Guidelines

Author 김정근 Kim, Jung-Keun /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아람 Kim, A-Lam /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석사

Abstract As the competition of city design from various municipals recently, color guidelines are continuously established. But the contents of color guidelines are differing from one municipal to the other, It has doubts on its effectiveness.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municipals' color guidelines in order to apprehen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among each other. In order to do this, the research will collect color guidelines of 5 different cities and 2 different districts. Then, by organizing tables for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ontents, the research will attempt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municipals. The conclusion of such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basic contents of color guidelines are composed with planning, proposing and managing stages. Furthermore its objective, target subject, detailed guidelines and exemplary cases were common.

Second, the contents of color guidelines of municipals were vastly differing from each other in respect to the size of the cities or the objectives of its application.

Third, color guideline contents of the city of Seoul, Sejong city, and Chung-ra district are composed rather reliably while that of the city of Incheon, and Sungbuk district were lacking considerably in terms of up-to-date survey of environment, color proposal, and managing policy in comparison to other municipals.

In conclusion, there is a strong necessity for standardization of establishment or form of the color guidelines. Furthermore, measures for proper adjustment in respect to the size of a municipal or its purpose should be arranged adequately.

Keywords 지방자치단체, 색채가이드라인, 구성 요소
Municipal, Color Guideline, Contents 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7년 경관법 제정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진행 중인 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행정개발 정책 등을 앞 다투어 도입하면서 도시디자인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도시 디자인의 요소 중 색채는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가장 강력한 요소로 시각정보의 80% 이상을 인식하며, 그 안에서 색채의 자극 강도가 70%로 가장 크다. 이러한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한 도시

색채 개선사업들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색채가이드라인마다 내용과 체계가 달라 많은 혼돈을 야기시키며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침으로서의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¹⁾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채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의도가 무엇보다 정확한 색채 운용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되어 효율적인 도시 색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색채가이드라인은 그 체계와 구성이 각각 달라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또한 색채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디자인의 단계별 조사 내용과 도구, 방법 등이 다양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준다. 색채 조사 결과,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분류 대상과 적용 방식이 상이하며 지

* 이 논문은 2011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이석현,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환경색채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효과요인 평가, 한국디자인학회 제23권 제4호 통권90호, 2010, p.67

자체 별로 제안 방식도 달라 가이드라인 마다 새롭게 연구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적용이 용이치 않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활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의 구성 내용과 방식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색채가이드라인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색채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작되어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그 내용과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지자체별 특성과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색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고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완성도와 활용성을 높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는 색채가이드라인의 개념과 특성을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고, 이미 수립된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선정하여 주요 구성요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색채가이드라인의 선정은 원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2008년부터 2010년에 사이에 수립되어진 지자체 색채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그중, 도시 5곳과 지구 2곳의 총 7곳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지자체별 색채가이드라인의 실태조사는 지자체별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색채가이드라인의 통합적 구성체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의 분류체계, 색채 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안과 관리 및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자체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구성 내용의 항목들을 표로 작성하고 그 유무와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색채가이드라인의 지자체와 명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

구 분	제 목	지자체
A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보고서 & 서울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서울시
B	대전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대전시
C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세종시
D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부산시
E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인천시
F	성북구 색채계획	성북구
G	청라지구 도시색채 가이드라인	청라지구

2. 색채가이드라인의 개념과 특성

2.1. 색채가이드라인의 개념

도시의 색채가이드라인은 외부 환경의 색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칭하는 개념²⁾이다. 이러한 개념은 2000년대 이후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도시 전체의 경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관확립을 설정하여 경관을 보존, 형성, 관리를 위한 권장과 유도 지침을 목적으로 하며 외부 환경 색채를 통한 시각적인 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제작된 매뉴얼인 것이다.³⁾ 그러므로 도시에서는 색채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도시 계획자의 손을 떠나도 항상 조화롭고 매력적이고 보편적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주민들이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율적인 조절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것⁴⁾이다.

2.2. 색채가이드라인의 선행연구

지금까지 색채가이드라인의 연구로는 박희경(2008)의 경우, 전통적 특성을 가진 삼청동 지역을 중심으로 색채 분포를 분석하고 색채 개념을 반영한 색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최은영(2009)은 아파트 색채에 대해 색채가이드라인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⁵⁾하였다. 또한 배용진(2009)과 지윤정(2010)은 상업지구⁶⁾나 수변공간⁷⁾을 대상으로 색채 계획 방향과 지침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구나 공간 유형별로 이루어져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연구의 내용이 색채가이드라인의 지침개발에 목적을 둬으로써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침 제시에 있어서도 지역의 색채를 조사하고 추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중되어 부분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윤희(2010)는 지역성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단계별 색채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침을 제시⁸⁾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색채가이드라인은 유도 지침 마련과 권장 이상의 보편적 경관 유지와 지속적 관리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 2) 최은영, 아파트 색채가이드라인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9
- 3) 김진진,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33
- 4) 이석현, 경관색채계획의 이론과 실천, 미세움, 2008, pp.122~123
- 5) 최은영, Ibid. 재인용
- 6) 배용진, 건축문화재 주변 상업지구의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지윤정, 도시수변공간의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김윤희, 지역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한 환경 색채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은영(2009)은 색채가이드라인의 계획이 보다 정확한 색채 운용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든지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은 계획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허용 색채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구상단계에서 참조될 수 있도록 지구의 특성을 살리고 보전할 수 있는 색채의 범위와 한계,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충실한 자료를 제공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희경(2008)은 색채가이드라인이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시적인 특성을 수반하므로 담당공무원, 디자이너, 일반인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¹⁰⁾고 하였다. 무엇보다 색채가이드라인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최대의 지표가 아닌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실제적인 특징을 고려하며 다른 디자인 유형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개별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는 도시 환경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지침개발과 그 적용 및 관리방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규모가 작고 색채가이드라인의 전체 구성 중 일부만 다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구성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례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보다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지자체 색채가이드라인의 실태

지자체 색채가이드라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색채가이드라인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전체적이고 통합적 접근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본구성과 분류체계, 현황조사의 내용, 색채 제안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3.1. 색채가이드라인의 일반적 특징

서울시의 A는 'soft city'를 이념으로 통합하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은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기본계획과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별도로 구성되어 2008년 5월에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서울 대표색 10색', '서울 권장색 600', '서울현상색 250', '서울지역색 50', '서울 기초색', '서울 상징색'의 위계를 가진 색채 체계로 정리된 '서울 색표집'으로 제시하

고 있다.

대전시의 B는 2011년 '대전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 디자인계획에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 대전'의 도시 정체성 확립의 목표로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이 기본인 가이드라인을 2009년 12월에 수립하였다. 대전의 자연환경의 계절별 변화 특성과 인공환경의 색채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색을 추출하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총 991개의 색채, 구성요소별 대표색채 총 65개, 건축물 벽체색, 건축물 지붕색, 공공시설물로 구분하여 각각 48색, 6색, 11색으로 제안되어 있다.

세종시의 C는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추구하여 건설 중인 행정 도시로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적인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한 목표로 2007년 7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색채현황분석을 통하여 도시 기초색 총 136색, 주거지 유형별 150색, 권역별 196색, 사업·교육·복합·기타시설 196색, 특화가로 146색으로 제안하였다.

부산시의 D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색채 경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산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인공환경에 대한 학술적, 과학적 연구를 통한 색채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색을 활용하여 올바른 도시색의 사용과 부산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2009년 12월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다. 색채현황분석을 통해 부산지역색 36색은 주조색 12색, 보조색 12색, 강조색 12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색은 권역별 특징을 담아 권역별 경관색으로 나누어진다.

인천시의 E는 인천만의 쾌적한 색채경관 형성을 목표로 인천의 지역특성 이미지의 부합, 독창성과 수월성을 지닌 경관계획 방안,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적용대상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역사문화, 공공건축·시설로 기본적략을 제시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성북구의 F는 풍부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역사자원과 건축물의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색채 관련 계획의 심의,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2010년 2월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적용대상은 색채 경관관리 구역을 북한산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컨셉을 정해 각 25색을 제안하였다.

청라지구의 G는 인천의 자연환경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 국제업무도시의 창출을 목표로하여, 2009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적용대상은 넓이에 따른 성격적 분류의 특성으로 총 6구역과 경관의 축의 특징에 따라 색채적용 방안의 차별성을 부여하여 색채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된 색채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이미지를 제시하여 색채계획방향을 제시하였

9) 최은영, Ibid., 제인용, p.14

10) 박희경, Ibid., 제인용, p.7

으며, 인천의 타 국제도시와 차별화를 위하여 색채현황을 분석하여 청라 대표 40색을 제안하였으며, 다시 각 존별 대표색인 20색을 제안하였다.

3.2. 색채가이드라인의 기본구성

7곳의 지자체 색채가이드라인에 나타난 기본 구성 내용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지자체별 기본 구성내용

구분	A	B	C	D	E	F	G	계
목표	○	○	○	○	○	○	○	7
컨셉	·	·	·	·	·	○	○	2
기본방향	○	○	○	○	○	·	○	6
색채현황	○	○	○	○	·	·	○	5
적용대상	○	○	○	○	○	○	○	7
원칙	○	·	○	·	○	○	○	5
세부지침	○	○	○	○	○	○	○	7
사례예시	○	○	○	○	○	○	○	7
관리방안	○	○	○	○	·	·	○	5
색표집	○	○	○	○	·	○	○	6
계	9	8	9	8	6	7	10	·

각 지자체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표, 컨셉, 기본 방향, 색채 현황, 적용 대상, 원칙, 세부 지침, 사례 예시, 관리 방안, 색표집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이 중에서 목표, 적용대상, 세부지침과 사례예시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컨셉의 제시는 F와 G지구의 소규모 지구단위의 가이드라인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현황과 원칙, 관리방안은 생략되는 지자체가 많았다. 지자체 중 A(9)시, C(9)시, G(10)지구는 구성내용을 가장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E(6)시의 경우, 도시권역 임에도 불구하고 간략한 기본 내용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의 분류체계

지자체별 범위를 구성하는 분류 방식을 살펴보면, 대상 선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7개의 사례가 도시 5곳과 지구 2곳으로 나타나 크게 도시와 지구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적용대상의 분류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성¹¹⁾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경관과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차원으로 분류한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자연녹지, 도시축, 시가지 지구경

11) 7곳의 색채가이드라인의 대상 분류는 자연녹지와 도시축 및 시가지지구경관을 공통으로 하며 이밖에 하위체계로 수변축, 가로축으로 분류하거나 시가지지구경관의 경우, 주택지, 공업지, 상업 업무지, 문화 역사지 경관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공간, 시설물, 매체, 야간조명 등의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는데 하위체계의 경우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사례가 적거나 뒤섞여 있어 여기서는 경관과 디자인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시가지지구경관을 포함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일반적으로 A, B, C, D시와 G지구의 경우는 자연녹지와 도시축을 포함하는 세분류 체계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E시와 F지구는 시가지지구경관 만으로 분류하였다.

<표 3> 지자체별 적용대상의 분류체계

유형	구분	A	B	C	D	E	F	G
범위	도시	○	○	○	○	○	·	·
	지구	·	·	·	·	·	○	○
경관	자연녹지경관	○	○	○	○	·	·	○
	도시축경관	○	○	○	○	·	·	○
	시가지지구경관	○	○	○	○	○	○	○
공공 디자인	공공공간 디자인	○	○	○	○	○	○	○
	공공시설물디자인	○	○	○	·	○	○	○
	공공매체 디자인	○	○	○	○	·	·	○
	야간조명 디자인	○	·	·	·	·	○	·
계	8	7	7	6	4	5	7	

공공디자인 차원의 구분은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 시설물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과 야간조명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공간 디자인의 경우 모든 가이드라인이 채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공공시설물-공공매체디자인 순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조명 디자인의 경우는 A시와 F지구에서만 채택하여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A시의 경우 가장 세분화된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고 E시의 경우 가장 단순한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공통적으로는 시가지지구 경관을 상위체계로 하며 공공공간 디자인과 시설물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색채가이드라인에서 대상의 분류방식이 경관과 디자인 차원을 포함하는 통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색채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시가지 지구 경관의 공공 공간 특히 건축물에 비중을 두는 것을 나타내준다.

3.4. 주변환경 요소의 구성

색채가이드라인은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떠한지 파악하기위해 앞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인문환경 요소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식물, 산, 평야, 토양, 돌, 바다, 강, 하늘, 상징물 계절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중, 지자체에서는 산, 토양, 물, 하늘, 식물의 요소에 대해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계절의 색채 측정에서 있어서는 B시와 같이 모든 계절의 색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여름, 겨울의 색채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8), B(10), C(7), D(6)시와 G(5)지구는 자연 환경에 대해 많은 요소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주로 조사하는 요소는 식물, 산, 토양, 바다나 강, 하늘로 나타났다. 그러

나 E(0)시와 F(0)지구는 자연환경 요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건축물, 시설물, 광장, 공원, 가로, 시장, 운송수단, 시각정보와 유적지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인공 환경 중, 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조사를 하였는데 A(10)시와 D(9)시는 가장 많은 인공 요소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C시, E시, F지구와 G지구의 경우는 인공 환경 요소의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통요소로써 의, 식, 주요 요소와 관혼상제가 있고 문화요소로써 문화재나 축제를 포함하였다. 이밖에 사례가 적어 제외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색채, 문화적 유산의 색채, 기억되는 지역 색채 등의 요소도 나타났다. 인문환경의 색채 조사 결과, 전통요소의 경우, A시와 D시의 두 곳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환경은 D시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A(4)시와 D(3)시에서는 다양한 인문 환경의 요소들을 조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에서 색채 조사는 자연환경의 요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다음에 인공 환경 중,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조

<표 4> 주변환경 요소의 구성

구분		A	B	C	D	E	F	G	
자연 환경 요소	식물	○	○	○	·	·	·	○	
	산	○	○	○	○	·	·	·	
	평야	·	·	·	○	·	·	·	
	토양	○	○	○	·	·	·	○	
	돌	·	○	·	·	·	·	·	
	수 (水)	바다	·	○	○	○	·	·	○
		강	○	○	○	○	·	·	·
	하늘	○	○	○	○	·	·	○	
	상징물	○	·	·	○	·	·	○	
	계절	봄	·	○	○	·	·	·	·
여름		○	○	·	·	·	·	·	
가을		·	○	·	·	·	·	·	
겨울		○	○	○	·	·	·	·	
계	8	10	7	6	0	0	5		
인공 환경 요소	건축물	역사건축	○	○	·	○	·	·	·
		근대건축	○	·	·	○	·	·	·
		현대건축	○	○	·	○	·	·	·
	시설물	○	○	·	○	·	·	·	
	광장	○	·	·	○	·	·	·	
	공원	○	·	·	○	·	·	·	
	가로	○	·	·	○	·	·	·	
	시장	○	·	·	○	·	·	·	
	운송수단	○	·	·	·	·	·	·	
	시각정보	○	·	·	·	·	·	·	
유적지	·	·	·	○	·	·	·		
계	10	3	0	9	0	0	0		
인문 환경 요소	전통	의	○	·	·	·	·	·	
		식	○	·	·	○	·	·	
		주	○	·	·	·	·	·	
	관혼상제	○	·	·	·	·	·		
	문화	문화재	·	·	·	○	·	·	
축제		·	·	·	○	·	·		
계	4	0	0	3	0	0	0		
총 계	22	13	4	18	0	0	4		

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환경에서는 식 요소를 두 곳에서 조사한 이외에 대체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과 부산과 같이 도시의 규모가 큰 경우, 다양하고 세분하여 환경 요소를 구성하고 조사하였으나 도시의 규모가 작거나 지구의 경우는 자연 환경 이외의 다른 환경 요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측색방법과 도구

색채조사 방법은 기계측색과, 시감측색, 디지털 촬영법이 있다. 시감측색은 색채현황 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였다.

<표 5> 측색방법과 도구

구분		A	B	C	D	E	F	G
방법	도구							
기계측색		○	○	○	·	·	·	○
시감측색	한국표준색표집 ¹²⁾	○	○	○	○	·	·	○
디지털 촬영법		○	○	·	○	·	·	·
계		3	3	2	1	0	0	2

A시와 B시는 세 가지 방법 즉, 기계 측색, 시감 측색, 디지털 촬영법 모두 사용하고 C시와 G시는 기계측색과 시감측색을 사용하였다. E시와 F지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타나지 않았다. D시는 시감측색과 디지털 촬영법으로 측색하였다. 측색 도구는 대부분 국내 색채표준체계인 한국표준색표집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색채 제안과 도구

(1) 색채 제안의 구성

색채 제안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A, C, D, E시에서는 주조, 보조, 강조색의 세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B시와 G시는 강조색을 제외한 주조색과 보조색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F지구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제시하지 않고 대표적인 색상만을 제시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지자체별 색채 제안 방식은 다양하고 통일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6> 제안의 구성내용

구분	A	B	C	D	E	F	G
주조색	○	○	○	○	○	·	○
보조색	○	○	○	○	○	·	○
강조색	○	·	○	○	○	·	·
대표색	·	·	·	·	·	○	·
계	3	2	3	3	3	1	2

(2) 색채 제안 방식

색채 제안방식은 색 자체의 제안방식과 더불어 색채의

12) 사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의해 제작·배포된 1519가지의 표준색에 대해 먼셀표기에 따라 제작한 색표집

예시를 제안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중, 색 자체의 제안방식은 이미지로 제시하는 방법과 색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색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에는 컬러팔레트, 배색띠, 그레이 스케일, 톤 그래프, Hue & Ton Matrix, 먼셀도표, 이미지 스케일, 먼셀 단면도, 색상환 등이 사용되었고 기호로서 표기해주는 방법에는 먼셀Munsell H/VC, KS 색표집 일련번호, NCS, CIE L*a*b, sRGB, Adobe RGB, CMYK, 자체 일련번호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의 이미지 제안은 컬러 팔레트와 톤 그래프, 배색 띠, 먼셀단면도, 색상환을 주로 사용하고 대략 4-5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칼라 팔레트와 톤 그래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C시(6), A시(5), B시(5)가 가장 많은 도구를 사용하여 제안 하였으며 F지구(3)와 E시(2)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으로 단순하게 제안 하였다.

<표 7> 색채 이미지와 기호

구분	A	B	C	D	E	F	G
이미지	컬러 팔레트	○	·	○	○	○	○
	배색띠	○	○	○	·	·	○
	그레이스케일	·	○		○	·	·
	톤 그래프	○	○	○	·	○	·
	먼셀 도표	·	·	·	○	·	○
	이미지 스케일	○	·	○	·	·	·
	먼셀 단면도	○	○	○	·	·	○
	색상환	·	○	○	○	·	○
계	5	5	6	4	2	3	4
색기호	Munsell H/VC	○	○	○	○	·	○
	KS 색표집 일련번호	·	○	·	·	·	·
	NCS	○	·	·	·	○	·
	CIE L*a*b	○	○	·	○	·	·
	sRGB	○	○	·	·	·	·
	Adobe RGB	○	·	·	·	·	·
	CMYK	○	○	·	○	·	·
	자체 일련번호	○	○	·	○	·	○
계	7	6	1	4	1	2	1
총 계	12	11	7	8	3	5	5

색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색기호는 'Munsell H/VC'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표준색 체계가 먼셀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시(7), B시(6), D(4)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색기호를 표기하였으나 F(2)지구, C(1)시, E(1)시, G(1)지구는 색기호를 단순하게 표기하였다.

제안방식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A(12), B(11), D(8), C(7)시는 7종에서 12종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였으며, F(5)와 G(5)지구와 E(3)시는 3종에서 5종의 비교적 적은 종류로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색채 제안 방식

색채 제안의 예시를 보여주는 방법은 포토몽타주와 CG, 도면, 사진들로 나타났다. 디자인 예시를 하고 있지 않은 D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2-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예시 방법은 포토몽타주, 도면과 사진을 권장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색채 적용 방식

구분	A	B	C	D	E	F	G
포토몽타주	○	○	·	·	○	○	·
CG	·	·	○	·	·	·	○
도면	·	○	○	·	○	·	○
사진	○	○	○	·	○	○	○
계	2	3	3	0	3	2	3

3.7. 색채의 관리 방안

지자체별 가이드라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제도정비에 있어서는 심의제도, 시민 참여제도, 인센티브제도, 타 계획과의 연계방식 제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표준정비에 있어서는 기본지침과 사용지침의 마련, 색견본 및 심의 양식 개발, 표준표기법, 색표집의 개발과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으로 나타났다. 홍보에 있어서는 전시와 홍보관 설치,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관리 방안 전체 구성에서 가장 공통적인 요소는 색채표준정비를 위한 기본지침 수립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색표집 개발을 많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정비에서는 심의제도 도입(4)과 타 계획과의 연계방안 제시(4)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포함하였다. 그러나 시민참여제도나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같은 요소는 각 한 곳씩을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C(3)시와 D(3)시가 많은 내용을 구성하였다.

색채표준정비에서도 기본지침 수립을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이외에 색표집 개발을 많이 구성하였으나 사용지침 마련, 심의용 양식 개발, 표준표기법 사용과 세부영역 매뉴얼 제작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 하나씩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A(4)시와 D(3)시가 색채표준정비에 있어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에서는 교육(3)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시(2) 및 시범 사업추진(2)을 나타내었다. 지자체별로는 D(4)시가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자체별로는 D(10), A(8), C(6), B(5)시의 순으로 관리 방안의 구성 내용을 많이 포함하

였다. 이에 비해 E(1)시, F(2)와, G(2)지구는 관리 방안의 내용이 1-2종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관리방안의 구성

구분		A	B	C	D	E	F	G
제도정비	심의제도 도입	○	○	○	○	·	·	·
	시민참여제도 도입	·	·	○	·	·	·	·
	인센티브 제도 도입	·	·	·	○	·	·	·
	타계획과 연계방안 제시	○	○	○	○	·	·	·
계		2	2	3	3	0	0	0
색채표준 정비	기본지침 수립	○	○	○	○	○	○	○
	사용지침 마련	·	·	·	·	·	·	○
	심의용 색검본 및 색채심의 양식 개발	○	·	·	·	·	·	·
	도서 작성 시 표준표기법 사용	·	·	·	○	·	·	·
	색표집 개발	○	○	○	○	·	·	○
	세부영역 매뉴얼 제작	○	·	·	·	·	·	·
계		4	2	2	3	1	2	2
홍보	전시	○	·	·	○	·	·	·
	홍보관 설치	·	·	·	○	·	·	·
교육		○	·	○	○	·	·	·
시범사업추진		·	○	·	○	·	·	·
계		2	1	1	4	0	0	0
총 계		8	5	6	10	1	2	2

4. 결론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내용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지자체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구성내용의 공통점은 목표와 적용대상, 세부지침, 사례예시로 나타났다. 색채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구분은 크게 지구, 경관과 공공디자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과 분류는 경관과 디자인 분야를 총괄하는 전체성 있는 체계를 갖는다는 특징을 나타내주었다. 그러나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상의 구분은 시가지 경관으로서 건축과 시설물에 두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야간 조명 디자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 내용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색채 계획에서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요소 중에서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건축물 및 시설물과 같은 인공요소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은 인문환경의 특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차별화의 요소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별로는 색채 제안의 내용과 구성 및 방법이 너무 가지각색이고 전문적이어서 사용자의 편이를 고려하여 보다 쉽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수립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색채 관리 방안에서는 심의제도 도입의 정비가 가장 비중 있게 구성되었고 색채 표준 정비를 위해 기본지침 수립과 색표집 개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색채가이드라인의 목표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행정 및

관련업계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제도나 홍보를 위한 관리방안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자체별로 볼 때, 서울A, 세종C, 청라G시의 경우, 구성내용을 세분화하여 충실도를 높이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인천E과 성북구F는 색채 현황에 대한 조사나 색채제안, 관리방안의 내용에서 매우 미흡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도시 규모나 색채 활용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과 구성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이나 세밀하게 구성하는 내용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사, 지침, 관리의 내용이 최소한이라도 구성될 필요를 나타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지자체의 색채가이드라인들은 계획, 제안, 관리에 있어 내용 구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보다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대수,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을 위한 색채관리 제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03
2. 김윤희, 지역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한 환경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 김진진,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박희경, 삼청동 지역색 분석을 통한 도시 이미지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배용진, 건축문화재 주변 상업지구의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 이석현, 경관색채계획의 이론과 실천, 미세움, 2008
7. 이석현,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환경색채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효과요인 평가,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0호 Vol. 23 No.4
8. 이현수, 도시색채 이야기, 도서출판 선, 2007
9. 지윤정, 도시수변공간의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0. 최은영, 아파트 색채가이드라인의 효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9
11. 대전광역시, 대전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2009
1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2010
13. 서울시, 일본의 경관색채 가이드라, 디자인총괄본부, 2008
14. 서울특별시,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2008
15. 서울특별시,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 연구보고서, 2008
16. 성북구, 성북구 색채계획, 2010
17.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환경색채 가이드라인, 2007
18. 울산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2010
19. 인천시,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2008
20. 청라지구, 청라지구 도시색채 가이드라인, 2009

[논문접수 : 2012. 08. 30]
 [1차 심사 : 2012. 09. 17]
 [게재확정 : 2012. 10. 12]